

# 조선시대에도 봄철에 산불이 있었다



김현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부 수석연구원

산불이 인위적 실화 혹은, 자연적 발화이던지 현대에만 있었던 일은 아닐 것이다. 혹시나 하는 호기심으로 조선시대에 발생한 산불의 흔적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다행히도 조선왕조실록에 여러 차례의 산불에 대한 기록이 있었고 놀랍게도 강원도 영동지역에서 발생한 기록이 대부분이었으며 봄철에 발생하였다. 또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준비와 사후 수습도 자세히 수록되어 있어 지면을 통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1. 머리말

산불을 걱정해야 하는 계절이 다가왔다. 해마다 봄철이면 예외없이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한다. 건조한 토양과 바짝 말라버린 산림이 강한 봄바람에 의하여 작은 불씨에 의해서도 용광로 처럼 변해버린다. 특히, 영동지역은 지형적인 이유로 더욱 건조해지기 때문에 예로부터 많은 산불 피해를 입어왔다. 2005년에는 4월 식목일을 전후하여, 강원도 양양일대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고 천년 고찰인 낙산사가 전소되고 동종(銅鐘)이 불에 녹아버리는 대형 참사를 불러왔다.

산이 전 국토의 7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는 의례 불이 나면 산불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넓은 평야지대가 많은 미국의 경우는 들불(wild fire) 혹은 숲불(forest fire)라고 하고, 관목과 자연림이 많은 호주는 숲불(bush fire)이라고 한다. 주변의 자연 환경에 따라서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언어에도 녹아있으나 보다.

## 2. 최근의 대형 산불

'90년대에 들어서 강원도 지역에는 잦은 대형 산불 피해가 있었다. '92년 4월 22일에 고성군 현내면 비무장지대 3000ha, '96년 4월 23일 고성군 죽왕면에 3700ha, 2000년 4월 7일에는 고성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의 23,138ha의 피해가 있어 산불피해상 최대면적을 기록하였다(고성군 토성면 2696ha, 강릉시 사천면 1447ha, 동해시 삼화동 2244ha, 삼척시 근덕면 1만6751ha). 2005년 4월 4일에는 양양군 일대에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불이 발생하여, 가옥과 창고 등 41채가 불에 탔다. 이 불길로 5일 오후에는 초속 15~20미터의 강풍이 불면서 대화재로 발전하며, 양양 일대 산림을 태우고 낙산사를 전소시켰는데, 일주문과 묘사체는 물론 대

웅전적인 원통보전이 전소되었고, 보물 479호인 ‘낙산사 동종’도 소실되었다.

### 3. 조선시대의 산불 기록

조선왕조실록<sup>1)</sup>에 산불에 관한 기록이 다수 있는데, 태조부터 철종까지의 기록을 찾아보았다. 산불이라는 키워드로만 검색하면 총 64건의 건수가 검색이 되는데 모두 산불이 발생한 내용은 아니고, 대형 산불은 성종과 순조 및 철종 때에 있었다. 건수로는 영조 때 9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산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능(陵)·원(園)·묘(墓) 등의 해자(垓子)밖에 있는 초목(草木)을 불살라 버렸다는 기록들이었다. 현종, 숙종과 정조 때도 각각 7건씩 있었으며, 세종 때에도 6건의 기록이 있었다. 계절별로 보면, 4월에 가장 많은 11건이 있었고 5월이 그 다음이었다. 조선시대에도 역시 봄철에 산불이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발생한 산불과 미담에 얽힌 기록을 조사하여 표 1과 표 2에 정리하였다. 그 중 대형 산불과 산불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에 대한 내용이 있는 일부 기록을 소개하고자 한다.

태조 4년 7월 30일(신유)에 처음으로 산불에 대한 기록이 보이는데, 산불을 예방하는 차원의 보고였다. 기록을 보면, 사사(使司)에서 전 낭장이던 정분(鄭芬)이 제언의 중요성을 임금에게 보고하는 내용인데, “무뢰한 무리들이 전렵하는 것만 탐을 내어 산에다가 불을 놓으니 더욱 마음이 아쁩니다. 마땅히 수령으로



그림 1. 강원 속초시 아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져 한 주택이 불길에 휩싸여 있다. (연합뉴스, 2005.4.10)



그림 2. 폐허가 된 낙산사(중앙일보, 2005/04/06)

하여금 친히 산림을 점검하고 부근에 살고 있는 백성들로 나누어 맡아 보게 하여, 만일에 불을 놓는 자가 있으면 즉시 와서 알리어 중한 죄로 벌하게 하고, 그것을 알리지 않는 자는 그 불놓은 사람과 연좌(緣坐)하게 하며, 단지 목마장에서 불을 놓아 벌레가 생기지 않을 때에만 불을 태우도록 하소서.” 화전을 위하여 산에 불을 놓는 것을 중하게 다스리되 말을 키우

1)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로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의 순서에 따라 기록한 책이다. 완질의 분량이 1,707권 1,188책(약 6,400만자)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이면서 조선시대의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법률, 통신, 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일시에 편찬된 것이 아니라 국왕 사후에 실록청을 설치하고 전왕(前王)대의 실록을 편찬한 것이 대대로 축적되어 이루어졌다. 편찬이 완료된 실록은 특별히 설치한 사고(史庫)에 1부씩 보관하였는데, 조선전기에는 서울에 있던 춘추관과 충주, 성주, 전주사고에 보관하였다. 그러나 왜란을 거치면서 전주사고본만 남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출판하여 춘추관, 태백산, 묘향산, 마니산, 오대산의 사고에 보관하였다. 이후에도 보관처는 변동이 있다가 정족산(강화도), 태백산(경북 봉화), 적상산(전북 무주), 오대산(강원 평창) 등 네 곳의 사고로 정착되었다. 그 후 일제하를 거치면서 오대산본이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관동대지진으로 거의 소실되었고, 한국 전쟁중에는 북한이 적상산본을 가져가 현재 남한에는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이 남아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1973년 12월 31일에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0월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규장각, 1998). 현재, 조선왕조실록은 국역작업이 완료되어 CD-ROM으로 판매되고 있고, 2005년 12월부터 인터넷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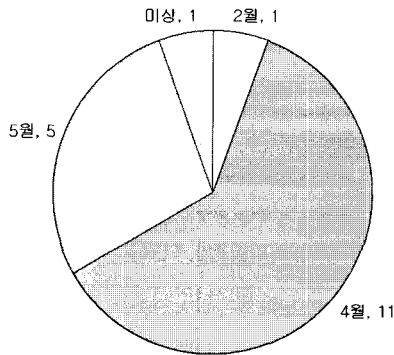


그림 3. 조선시대 발생한 산불의 발생 시기 및 건수

는 목장에서 해충을 방제하는 목적으로만 허기를 하도록 한 것이다.

성종 3년에는 산불과 효(孝)에 얽힌 기록을 찾아 볼수 있다. 평산 사람 임효명이 산불이 분영(墳塋)에 번지는 것을 보고 몸소 스스로 끄려다가 불 속에 쓰러지자, 그의 아들인 임담(任澗)이 불을 무릅쓰고 돌입하여 아버지를 안고 나왔는데, 얼굴이 불에 그슬리고 발이 익어 문드러졌습니다. 몸을 돌보지 않고 아버지를 죽음에서 탈출시킨 효성은 가상할 만하다고 하였다 임담(任澗)은 녹용(錄用)하게 하였다. 산불로 묘소가 불길에 휩싸이자 아버지가 몸을 아끼지 않고 불을 끄다 화를 당하자 아들이 불길 속에서 아버지를 구했다는 효자에 대한 이야기 이다.

성종 20년 3월 14일(임신)의 기록을 보면, 강원도 관찰사 이육(李陸)이 보고하였는데, “2월 24일에 산불이 나서 양양부 주민 2백 5호와 낙산사(落山寺) 관음전(觀音殿)이 연소되고, 간성 향교와 주민 2백여 호가 일시에 모두 탔는데 오직 사람과 가축은 상하지 아니하였고 민간에 저장한 곡식이 모두 재가 되었으니, 청컨대 통천(通川)의 전세(田稅)를 옮겨 받아서 주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2005년에 불타버린 양양의 낙산사가 이 때에도 전소가 되었었던 것이다.

성종 23년 3월 4일(갑술)에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우부승지(右副承旨) 조위(曹偉)가 보고하는 대목이 있다. “이른 봄에는 바람이 어지럽게 불고 풀잎이 말라 있으므로, 산불이 번지기가 매우 쉽습니

다. 산에 초목이 없으면 물줄기의 근원이 마르게 되므로, 농사에 해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초목이 생장할 시기에 수령들이 산림에다 불을 질러 놓고 사냥을 하며, 백성들도 화전을 일구어 경작을 합니다. 그래서 재목까지도 바닥이 나게 생겼으니,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청컨대 법을 만들어 금하게 하소서.”라고 보고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겠다. 바야흐로 초목이 생장하는 봄철에 불태워 죽이는 것은 천심(天心)에도 위배되는 것이니, 엄하게 금하도록 하라.”하여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사전 대책은 성종 25년에도 또 다시 보이는데, 1월 10일(경자)에 제도 관찰사(諸道觀察使)에게 하서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쌓인 눈이 점차 녹는데도 봄풀이 소생하지 아니하고 마른 풀이 매우 건조하니, 오직 들불[野火]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산전(山田)의 요치(療治) 또한 남은 불씨가 잇달아 번질까 두렵다. 진전(眞殿)과 능실(陵室)이 있는 곳에서는 뜻을 기울여 불을 조심함이 옳을 것이다.”하여 산불에 만전을 기할 것을 명령하였다.

중종 19년 3월 19일(갑신)에는 강릉의 대산(臺山, 오대산) 등에 산불이 바람을 따라 일어나 번져서 민가 2백 44호를 태웠고, 경포대의 관사도 죄다 태웠는데 주방만이 타지 않았으며, 민가의 소 한마리와 말 한마리가 타죽었다.

현종 1년 3월 4일(기미)에 영돈녕부사 이경석이 아뢰기를, “지난번 영동 삼척에 산불이 나서 인가 1백 70여 채가 연소되어 참담하기 말이 아니었는데, 지금 들으면 강릉·통천 등지에 또 화재가 났고 피해자 수도 많아서 비록 본도로 하여금 홀전(恤典)을 거행하려고 하여도, 감영에 저장된 것이 원래 적어 은혜를 고루 베풀기 어렵다고 합니다. 의당 호조에서 3, 4동(同)의 무명베를 떼내어 본도로 내려보내고 그것을 재앙당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어 국가가 각별히 돌보고 있는 뜻을 보여주게 하소서.”하여, 상이 해조에 명하여 무명베 4, 5동을 보내라고 하였는데, 비국에서는, 너댓 동의 무명베로는 1백 70여 호에다 고루 나누어 줄 수 없으니 본 아문의 여정포(餘丁布)를 더 보태어

내려보낼 것을 청하였다. 또한, “영동 8개 읍은 기근에다가 산불까지 만나 사망자가 났는데, 도신(道臣)과 수령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특별 조치를 취해야지만 그들 정신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니, ‘암행(暗行)’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그냥 여사를 보내 진구에 진력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염탐하게 함으로써 조정의 덕의(德意)를 퍼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구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지방 수령이 직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종 13년에는 큰 불이 있었는데, 4월 5일(경진)에 강원도의 강릉·삼척 등 네 고을에 산불이 크게 나서 불타버린 민가가, 1천 9백여 호이고, 강릉 우계의 창고 곡물과 군기(軍器) 등의 물건이 한꺼번에 다 타버렸으며, 불에 타 죽은 사람이 65명이었다. 네 고을의 백성들이 기근을 겪은 뒤에 또 이 화재를 당해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 도신(道臣)이 이를 아뢰니, 상이 영서(嶺西)의 곡식 1천 석을 옮겨 구제하라고 명하였다.

숙종 6년 3월 7일(병신)에 통천 등 다섯 고을에 광풍이 크게 일어나면서 산불이 인가에 번져서 탄 것이 5백 36호에 달하였다.

숙종 23년 2월 8일(기축)에도 강릉부에 바람이 크게 불고 산불이 갑자기 일어나 대관령아래 살고 있는 백성들의 집 65호를 연달아 태웠다고 하였다.

정조 6년 2월 24일(신묘)에는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통제사의 장문(狀聞)에 의하면 거제 지세포에 있는 봉산(封山)에 불이 나서 잇따라 어린 소나무를 불태운 것이 몇 천만 그루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청컨대 해당 수령(守令)과 변장(邊將)은 엄히 감죄(勘罪)하고 통제사는 무겁게 추고(推考)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이는 전에 들어보지 못하던 일이다. 이런데도 심상(尋常)하게 조처한다면, 산에 남은 소나무가 없게 되고야 말 것이다. 해당 수신(帥臣)은 1등(等)을 월봉(越俸)하고 거제부사 이달관(李達觀), 지세포 만호(知世浦萬戶) 김정룡(金廷龍)에 대해서는 죄를 논한 것이 너무 너그럽다. 파직시킨 다음 나래(拿來)하여

무겁게 감죄(勘罪)하라.” 하였다. 조선시대의 봉산(封山)은 국가가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산림자원을 원할히 공급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입산이 금지된 산이었다. 이러한 산에 불이 났으니, 더군다나 배를 제작하기 위한 목재를 공급하는 산에 불이 났으니 담당 관리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추궁하였음은 당연한 조치였다.

순조 4년에는 강원도와 함경도 일원에 큰 산불이 있었다. 3월 12일(신축)에 강원 감사 신헌조(申獻朝)가 ‘이달 3일 사나운 바람이 크게 일어나 산불이 크게 번졌는데, 삼척·강릉·양양·간성·고성에서 통천에 이르는 바닷가 여섯 고을에서 민가 2천 6백여 호, 원우(院宇) 3곳, 사찰 6곳, 창사(倉舍) 1곳, 각종 곡식 6백 석 영(零), 배 12척, 염분(鹽盆) 27좌(坐)가 불에 타고 타 죽은 사람이 61명이었다.’ 3월 15일(갑진)에는 함경 감사 이익모(李翊模)가 ‘이달 3일 큰 바람이 불어 산불이 크게 번져 안변부의 북창 및 각종 곡식 2천 60석 영(零), 민가(民家) 2백 33호, 염분(鹽盆) 7좌(坐), 승암(僧庵) 6곳이 모두 불에 탔다.’고 보고하였다. 두 지역에 대하여 위유어사(慰諭御使)를 보내고, 고홀(顧恤)·전접(奠接)하는 방도를 따로 더 구획(區劃)하라 명하고, 불에 탄 곡물은 모두 탕감해 주었다.

철종대왕행장(行狀)에도 산불기록이 있는데, 윤달에는 관동 지방에서 양양·통천·간성에 산불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장문(狀聞)했는데, 강릉·고성·정선의 화재도 모두 같은 날에 있었으며, 관북지방에서는 안변·덕원의 가호가 연소된 것도 같은 날에 있었습니다. 양도의 여덟 고을에 화재를 당한 인가가 2천여 가호였는데, 초목·창고·사찰도 모두 불타버렸으므로 임금이 크게 놀라 두려워하면서 이르기를, ‘존홀하는 방도를 전례를 따르는 데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하고 특별히 윤음을 내리고 사자를 보내어 위유(慰諭)한 다음 은자(銀子)·단목(丹木)·백반(白礬)을 반사(頒賜)하였으며, 가옥·창고·사찰을 도와 모두 증건하게 하였습니다. 관동의 재읍(災邑)에 대해서는 당년에 상납할 전세(田稅)·대동미(大同米)·군포(軍布)를 견감시켰습니다.

표 1. 조선시대 산불 발생 기록

발 생 일	내 용
태종05/03/19(갑인) (1405/04/26)	소요산(逍遙山)의 이궁(離宮)에 불이 났으니, 산불이 연소(延燒)된 것이었다.
성종20/03/14(임신) (1489/04/23)	“2월 24일에 산불이 나서 양양부(襄陽府) 주민 2백 5호와 낙산사(落山寺) 관음전(觀音殿)이 연소(連燒)되고, 간성 향교(杆城鄕校)와 주민 2백여 호가 일시에 모두 탔다.
중종19/03/19(갑신) (1524/05/02)	강릉(江陵)의 대산(臺山) 등에 산불이 일어나 번져서 민가 2백 44호를 태웠고, 경포대(鏡浦臺)의 관사(官舍)도 죄다 태웠는데 주방(廚房)만이 타지 않았다.
중종19/04/04(무술) (1524/05/16)	강릉(江陵) 땅에 산불이 바람을 따라 일어나 퍼져서 민가 2백 40여 호를 태웠다.
선조33/03/01(갑진) (1600/04/13)	경릉에 야화(野火)가 화소(火巢) 안에까지 번졌는데 세찬 바람이 불어 제때 끌 수가 없어서 능상(陵上)에까지 이를 지경에 있다.
현종01/02/24(기유) (1660/04/03)	삼척(三陟)에서 산불이 일어나 민가에까지 불길이 번졌는데 알몸으로 탈출한 자가 1백 60여 명이었고 불타 죽은 자가 5명이었다.
현종01/03/04(기미) (1660/04/13)	지난번 영동 삼척(三陟)에 산불이 나서 인가 1백 70여 채가 연소되어 참담하기 말이 아니었는데, 지금 들으면 강릉(江陵)·통천(通川) 등지에 또 화재가 났고 피해자 수도 많았다.
현종01/03/19(갑술) (1660/04/28)	영동 8개 읍은 기근에다가 산불까지 만나 사망자가 났다.
현종02/04/19(무술) (1661/05/17)	현릉(獻陵)에 산불이 일어나 죄다 타버린 일이 있었다.
현종07/02/29(경진) (1666/04/03)	강원도 영동에 큰 바람이 불고 산불과 물로 인하여 삼척은 2백 51호, 강릉은 1백 27호, 양양은 38호가 연소되었으며, 불에 타 죽은 자는 4명이었고, 익사자는 5명이었다.
현종13/04/05(경진) (1672/05/01)	원양도의 강릉·삼척 등 네 고을에 산불이 크게 나서 불타버린 민가가, 1천 9백여 호이고, 강릉 우계(羽溪)의 창고 곡물과 군기(軍器) 등의 물건이 한꺼번에 다 타버렸으며, 불에 타 죽은 사람이 65명이었다.
숙종06/03/07(병신) (1680/04/05)	통천(通川) 등 다섯 고을에 광풍이 크게 일어나면서 산불이 인가에 번져서 탄 것이 5백 36호에 이르렀다.
숙종23/02/08(기축) (1697/02/28)	강릉부(江陵府)에 바람이 크게 불고 산불이 갑자기 일어나 대관령(大關嶺) 아래 살고 있는 백성들의 집 65호(戶)를 연달아 태웠다.
경종04/04/01(갑술) (1724/05/23)	함경도 홍원현(洪原縣)에 산불[地火]이 치솟아 10여 일 동안 꺼지지 않았는데, 흙이 검게 그을리고 풀이 타고, 연기가 하늘을 덮었다.
정조06/02/24(신묘) (1782/04/06)	거제(巨濟) 지세포(知世浦)에 있는 봉산(封山)에 불이 나서 잇따라 어린 소나무를 불태운 것이 몇 천만 그루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순조04/03/12(신축) (1804/04/21)	이달 3일 사나운 바람이 크게 일어나 산불이 크게 번졌는데, 삼척(三陟)·강릉(江陵)·양양(襄陽)·간성(杆城)·고성(高城)에서 통천(通川)에 이르는 바닷가 여섯 고을에서 민가(民家) 2천 6백여 호, 원우(院宇) 3곳, 사찰 6곳, 창사(倉舍) 1곳, 각종 곡식 6백 석 영(零), 배 12척, 염분(鹽盆) 27좌(坐)가 불에 타고 타 죽은 사람이 61명이었다.
순조04/03/15(갑진) (1804/04/24)	이달 3일 큰 바람이 불어 산불이 크게 번져 함경도 안변부(安邊府)의 북창(北倉) 및 각종 곡식 2천 60석 영(零), 민가(民家) 2백 33호, 염분(鹽盆) 7좌(坐), 승암(僧庵) 6곳이 모두 불에 탔다.
철종 (1859./../)	기미년 윤달에는 관동(關東) 지방에서 양양(襄陽)·통천(通川)·간성(杆城)에 산불이 발생했다. 강릉(江陵)·고성(高城)·경선(旌善)의 화재도 모두 같은 날에 있었으며, 관북(關北) 지방에서는 안변(安邊)·덕원(德源)의 가호가 연소(延燒)된 것도 같은 날에 있었습니다. 양도(兩道)의 여덟 고을에 화재를 당한 인가(人家)가 2천여 가호였다.

표 2. 조선시대 산불 대비 및 미담

발생일	내용
태조04/07/30(신유) (1395/09/02)	마땅히 수령으로 하여금 친히 산림을 점검하고 부근에 살고 있는 백성들로 나누어 맡아 보게 하여, 만일에 불을 놓는 자가 있으면 즉시 와서 알리어 중한 죄로 벌하게 하고, 그것을 알리지 않는 자는 그 불놓은 사람과 연좌(緣坐)하게 한다.
성종23/03/04(갑술) (1492/04/09)	초목이 생장(生長)할 시기에 수령(守令)들이 산림(山林)에다 불을 질러 놓고 사냥을 하며, 백성들도 화전(火田)을 일구어 경작(耕作)을 합니다. 그래서 재목(材木)까지도 바닥이 나게 생겼으니,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청컨대 법(法)을 만들어 금하게 하소서
성종25/01/10(경자) (1494/02/24)	지금 바야흐로 쌓인 눈이 점차 녹는데도 봄풀이 소생(蘇生)하지 아니하고 마른 풀이 매우 건조(乾燥)하니, 오직 들불(野火)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산전(山田)의 요치(療治) 또한 남은 불씨가 잇달아 번질까 두렵다. 진전(眞殿)과 능실(陵室)이 있는 곳에서는 뜻을 기울여 불을 조심함이 옳을 것이다.
인조16/09/12(신미) (1638/10/18)	태백산(太白山)의 사고(史庫)는 수목이 뿔뿔한 가운데에 있어서 해마다 산불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일찍이 선조(宣祖) 시대에 별도로 사목(事目)을 정하여 참봉 두 사람에게는 아울러 관료(官料)를 주고 중[僧]에게는 위토전[位田]을 떼어주어 관리하게 하였습시다.
성종03/02/09(병자) (1472/03/27)	평산(平山) 사람 전 첨지(僉知) 임효명(任孝明)은 산불이 분영(墳塋)에 번지는 것을 보고 몸소 스스로 끄려다가 불 속에 쓰러지자, 그의 아들인 전 도사(都事) 임담(任澗)이 불을 무릅쓰고 돌입하여 아버지를 안고 나왔는데, 얼굴이 불에 그슬리고 발이 익어 문드러졌다. 몸을 돌보지 않고 아버지를 죽음에서 탈출시킨 효성은 가상할 만하다.
정조08/03/27(임자) (1784/04/16)	그리고 온성(穩城)의 박기만(朴紀萬)은 6년 동안 추상(追喪)하면서 죽(粥)을 마시고 몹시 슬퍼하였는데 효감(孝感)이 미치는 바에 산불이 저절로 꺼졌다.

#### 4. 맺음말

조선시대에 발생한 산불 기록을 통하여, 과거에도 산불이 특정 시기와 특정 장소에 자주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해안의 영동지역은 지형적 이유와 울창한 산림으로 봄철에는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1996년에 고성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등지의 23,000여ha가 산불로 피해를 입었고 2005년도 양양군에 발생한 산불로 낙산사가 성종 20년(1489)에 전소된지 516년만에 또 다시 산불 피해를 당하였다. 지금으로부터 200여년 전인 순조 4년(1804) 3월에는 강원도와 함경도 일대의 7개 고을에서 3,000여 호가 산불 피해를 입고 창고에 쌓아둔 곡식, 소금, 사찰, 선박 등이 불에 타는 대형 피해를 입었다. 모두 양력으로 4월에 발생한 산불이었다.

산불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조선을 개국한 태조부터 역대 왕들은 봄이 되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수령들로 하여금 산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게 하고 이를 게을리 한 관리들을 엄하게 다스렸다. 또한,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에서 물자를 공급하고 세금을 감하며 중앙정부에서 위로를 하기위한 관리를 파견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연재해를 막기는 사실 어려운 일이다. 다만, 재해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준비하는 방법만이 있을 뿐이다. 선조들의 가름침을 거울 삼아, 올 봄에는 산불 소식이 없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여 본다.

#### 참고문헌

1. 서울시스템, 한국역사 오천년 CD-ROM, 2001
2.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